

도시 공공개발을 위한 환경운동과 사회주의의 협력 -20세기 초 파리 성곽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민 유 기**

목차

들어가며

I.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시정사회주의자들의 노력

II. 녹지 확보와 사회주택 건설 요구의 결합

III. 도시 공공개발을 통한 성곽 부지의 변화

나오며

들어가며

파리를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세계적 대도시로서 명성에 걸맞지 않게 아담한 규모와 인구수에 의아해 한다. 파리의 면적은 시 경계에 접해있는 동쪽의 뱅센 숲(Bois de Vincennes)과 서쪽의 불로뉴 숲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KRF-2007-361-AM0027)

** 광운대 교양학부 조교수

(Bois de Boulogne)을 포함하여 105km²이며 2010년 1월 인구는 약 221만 명이다.¹⁾ 즉, 605km²의 땅에 약 1천만이 모여 사는 서울과 비교하면 면적은 1/6 인구는 1/5정도이다. 유럽의 다른 대도시와 견주어도 파리의 면적과 인구는 작은 편이다.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의 면적은 1,577km², 인구는 약 760만 명이며 베를린은 891km²에 약 340만 명이 살고 있다. 1958년에 시작되어 1973년까지 점차적으로 건설된 총 길이 35km인 파리 외부고속순환도로는 인접한 교외 소도시들과 파리를 확연하게 구분 지어주는 경계이다. 외곽순환도로에서 시내 쪽으로는 각종 공원, 스포츠 경기장과 사회주택 단지들이 늘어서 있다. 이 원형의 경계는 유럽의 다른 대도시들이 최초의 도심부에서 동서남북으로 들쭉날쭉하게 팽창한 것에 비해 파리가 원형을 유지하면서 무분별하게 팽창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의 외부고속순환도로는 1840년대에 건설되어 1920년대에 해체된 파리 성곽이 위치했던 부지의 가장 바깥쪽이다. 1830년 7월 혁명을 통해 세워진 자유주의 입헌왕국인 7월 왕국 하에서 수상을 지낸 아돌프 티에르(Adolphe Thiers)의 주도 아래 1841년에서 1844년까지 건설된 파리 성곽 부지는 총 길이 33km의 성벽과 성벽 바깥쪽 250m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공터로 구성되었다. 이 성곽은 건설될 당시 파리 시 경계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나 제2제국 시기 오스만의 파리 정비 과정에서 파리가 주변 소읍들을 흡수해 면적이 확대된 1860년부터 새로운 시의 경계로 기능했다.

파리는 19세기 중반 산업과 상업의 비약적 성장으로 인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고, 이는 당연히 좁은 면적의 파리에 주택난을 야기했다. 특히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파리 외곽 구들에서 주거난이 심각

1) *Journal officiel*, le 2 janvier 2010. 파리 20개 구별 인구 변화 통계가 실려 있다.

하였다. 이는 1850-60년대 파리의 근대적 도시정비 과정인 오스만화(Haussmannisation)를 통해 도심의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 철거된 후 부유층을 위한 고급주택이나 고급상점들이 들어서면서 가난한 노동인구가 파리의 외곽 구들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1880년대 초에 서민주택의 집세 폭등으로 주택위기가 발생하자 파리 시의회에서는 급진공화파와 시정사회주의자들이 주거난 해소를 위한 각종 방안을 제안하면서, 성곽부지 공터에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단지를 건설하자는 의견이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이후에도 1894년부터 시작된 사회주택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었다. 1900년대 들어서는 군사용도인 성곽 부지를 녹지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도시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부르주아 사회개혁가들과 환경주의자들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시정사회주의자들과 환경운동 진영은 사회문제와 도시계획에 대한 각각의 강조점이 달라 갈등을 빚기도 했으나 성벽을 허물고 공유지인 성곽 부지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공통된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도시를 성곽으로 방어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생각이 되었고, 도시 경계에 군사용 시설이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파리의 성곽 해체와 부지 활용 논의가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 1919년부터 1929년까지 성곽이 해체되었다. 성곽 해체의 논의 과정에서 민간 건설업자와 성벽 가까운 곳에 땅과 건물을 소유한 부동산 소유자들은 해체된 성곽과 그 주변 공유지가 민간에게 불하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지는 사회주택 건설과 공원 및 스포츠 경기장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같은 공공 성격이 강한 공간 정비는 파리의 주택난 해결을 위해 압력을 행사한

사회주의자들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녹지 공간 확보를 요구한 환경주의자들이 투기성 도시정비와 재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협력한 결과이다.²⁾

파리 성곽 철거 문제는 그간 여러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제법 많은 선행연구들이 존재한다. 1830년대 성곽의 건설 논의부터 1990년대 현재의 상황까지를 개괄적으로 다룬 연구서가 대표적이다.³⁾ 하지만 이 연구서는 연구 시기가 너무 길어서 시대별로 성곽과 그 부지의 공간 활용의 변화에 대한 다소 일반적인 서술에 머무르고 있다. 시기를 압축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로는 마리 사르베(Marie Charvet)의 1999년에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2005년에 출판된 이 연구는 성곽 해체 논의가 시작된 1880년대부터 해체가 시작된 1919년까지를 다루면서 위생주의자들의 활동이 파리 성곽 부지에 대한 근대적 도시계획의 적용을 가능하게 했음을 강조한다.⁴⁾ 이 연구는 성곽 해체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 가운데 위생주의자들의 도시 공공위생 강화 논리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글에서 주목한 환경운동 진영과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에 대해 중요한 의미 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

2) 사회주택 정책의 탄생에는 급진공화파의 기여가 컸고 사회주의자들은 이들을 비판적으로 지지하면서 사회주택 정책에 보다 공공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지향성을 부가하기 위해 노력했다. 성곽 해체와 그 부지 활용 논의에서 사회주의자들의 활동이 급진공화파의 활동보다 중요했기에 이 글에서 급진공화파는 다루지 않는다.

3) Jean-Louis Cohen, André Lortie, *Des Fortifs au Perif: Paris, Les Seuils de la ville*, Paris: Picard, 1991.

4) Marie Charvet, *De l'hygiénisme à l'urbanisme: la question des fortifications de Paris de 1880 à 1919*, Thèse de EHESS, 1999. 이 박사논문의 일부는 1994년에 학술지에 소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Marie Charvet, "La question des fortifications de Paris dans les années 1900", *Genèses*, n.16, juin 1994, pp.23-44. 단행본으로는 2005년에 출판되었다. Marie Charvet, *Les fortifications de Paris: de l'hygiénisme à l'urbanisme, 1880-1919*,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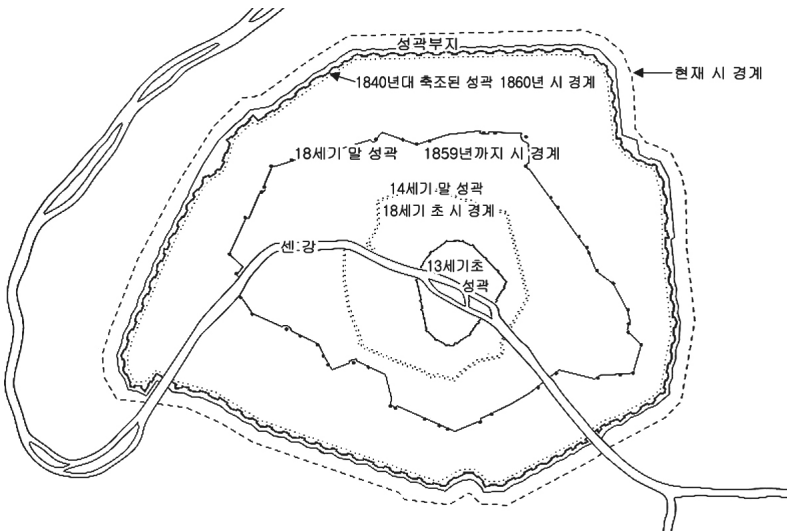
곽이 해체 된 이후 양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 동안 성곽 부지가 어떻게 정비되고 활용되었는가에 대해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성곽 부지에 건설된 공원, 대학 기숙사촌, 스포츠 경기장, 박람회 전시관 등은 각각의 주제에 대한 여러 연구들에서 조금씩 다루어졌으나 공공 성격의 공간 활용이 가능했던 역사적 맥락에 대해서는 분석이 미비하다.⁵⁾ 우리 학계에 파리의 성곽 부지 문제는 1916년에 설립된 파리 도시학연구소의 인문학 전통과 사회적 기능에 대해 분석한 필자의 논문에서 간략히 소개된 것이 전부이다.⁶⁾

이 글에서는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참고하면서 파리 시의회의 보고서나 회의록, 환경운동 진영과 사회개혁가들의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의 1차 사료를 추가로 검토하면서 파리 성곽 부지가 투기성 개발이 아니라 공공 용도로 정비된 것을 사회주의자들과 환경주의자들 간의 협력의 성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곽과 그 부지 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자들과 환경주의자들의 입장이 어떻게 상이했고 어떤 공통분모를 지녔는지를 살펴본 후, 성곽 해체 이후 공간이 어떻게 정비되고 활용되었는가를 고찰할 것이다. 성곽과 부속 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다룰 사회주의자들과 환경주의자들 뿐 아니라 도시계획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도시 계획가들은 사회주의

5) 예들 들어 André Lortie, Pierre Schall ed., *Parcs et promenades de Paris*, Paris: Editions du Demi-Cercle, Pavillon de l'Arsenal, 1989. Bertrand Lemoine, *La 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Paris: Editions Hervas, 1990.

6) 민유기, 『파리 도시학연구소의 인문학 전통과 사회적 기능』, 『인문학연구』12호, 2010, 1-39쪽. 이 논문은 1916년에 설립되어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파리도시학연구소(Institut d'Urbanisme de Paris)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 연구소의 탄생 배경으로 성곽의 해체 논의와 해체 이후 부지 활용이라는 거대한 공간 정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의 확대를 언급하고 있다. 고명은 성곽 해체와 부지활용 문제가 도시계획에 대한 정책과 기술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강조한 바 있다. Jean Pierre Gaudin, *L'Avenir en plan. Technique et politique de la planification urbaine 1900-1930*, Seyssel: Champ Vallon, 1985, pp.31-36.

자나 환경주의자들처럼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간 활용의 방향성 제시보다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인 공간 정비 논의에 주로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도시 계획가들의 입장은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는 과학기술사적 시각에서 또 다른 연구의 주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지도 1> 파리의 확장과 성곽

I. 주거난 해소를 위한 시정사회주의자들의 노력

7월 왕국 하에서 파리를 방어하기 위해 시 외곽에 성곽을 축성하자는 주장이 등장한 것은 1814년 나폴레옹 체제를 무너뜨린 반프랑스 유럽연합군의 파리 입성처럼 외국 군대의 손쉬운 파리 진입을 방지하는 것이었다. 물론 입헌왕국에 비판적이었던 공화파들은 군사 용도

의 원형 성곽 중간 중간에 주둔할 군대가 향후 있을지도 모른 혁명적 운동을 빠르게 진압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성곽 축성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⁷⁾ 하지만 이런 반대는 소수의 목소리로 파묻혔고 산업혁명의 여파로 일자리를 잃어가던 수공업 장인들과 지방에서 상경한 석공들을 동원한 성곽 축조가 4년에 걸쳐 이루어졌다.⁸⁾

도심에서 약 10km 떨어진 외곽을 원으로 감싸는 성곽은 파리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군사적 시설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1853년에 제2제정의 황제 나폴레옹 3세에 의해 셴(Seine) 지사로 임명된 오스만(E. Haussmann)이 1870년 초 지사직을 사퇴하기까지 수행한 파리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 성곽은 파리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게 된다. 오스만은 도심의 교통망을 확대 정비했고, 상하수도 망과 녹지공간을 확대시켰으며, 공공건물들을 대거 신설했다. 오스만화는 부르주아의 도시 하층민에 대한 이중적 두려움, 즉 비좁고 불결한 도심의 빈민 주거단지에서의 전염병 발병과 확산에 대한 공포, 그리고 도시 공간과 주택을 공유하던 도시 하층민의 바리게이트 폭동에 대한 공포라는 이중 공포의 산물이었다.⁹⁾

오스만화는 도심의 하층민 밀집 주거지를 파괴하였고, 철거된 도심에 거주하던 하층민은 도심의 지가와 집세상승을 견디지 못해 1860년에 새로 파리에 편입된 외곽 구들 가운데 부르주아 구였던 16구와

7) Jean-Louis Cohen, André Lortie, *op.cit.*, p.120.

8) Patricia O'Brien, "L'Embastillement de Paris: The Fortification of Paris during the July Monarchy",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9, n.1, 1975, pp.63-82.

9) 민유기, 『도시이론과 프랑스 도시사 연구』, 서울: 심산출판사, 2007, 201-210쪽. 1832년과 1849년 파리에서 발생한 콜레라는 약 1만8천명과 1만6천명의 사망자를 낳았다. Alfred Fierro, *Histoire et dictionnaire de Paris*, Paris: Robert Laffont, 1996, p.774. 위생주의자들과 경찰의 당대 보고서들을 보면 최초의 전염병 발생 지역은 도시 하층민의 밀집 주거지였다. 혁명기 샹젤로트들의 전통을 계승한 파리 도심과 도심 동쪽 빈민지역은 1830년과 1848년 혁명 당시 수천 개의 바리게이트가 설치된 지역 이었다.

17구를 제외한 12, 13, 14, 15, 18, 19, 20구들로 내몰렸다. 문제는 이들 파리 하층민 밀집 구들에서도 주택을 구하지 못했던 도시빈민들이었다. 이들은 19세기 후반부에 공터인 성곽부지에 들어선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였다. 성곽부지는 성벽 바깥의 토지로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터, 즉 ‘건축금지 부지(zone non-aedificandi)’였는데, 닝마나 널빤지, 종이 등으로 지어진 판자촌은 건축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빈민들이 법을 어긴 것은 아니었다. 성곽 부지를 관리한 군 당국은 이따금씩 철거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판자촌의 규모가 광범위해 전면적인 철거는 불가능했고, 성곽 부지의 판자촌은 도시에서 배제된 이들의 마지막 거주지로 일종의 사회적 관용의 대상으로 묵인되었다.¹⁰⁾

성곽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주택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880년대 초 파리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파리에서는 1882년에 서민주택의 집세가 폭등하면서 주택위기가 발생했다.¹¹⁾ 이에 1882년 시의회에 서민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안과 계획안이 제출되었고, 이들 가운데 하나였던 이브 기요(Yvs Guyot)의 제안서가 파리의 성곽을 해체하고 그 터에 서민주택을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제안서는 정부에 성곽 해체를 요구하고 군 소유의 부지를 시로 넘기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할 위원회를 시의회

10) 1912년 성곽부지에는 1만2천여 개의 다양한 유사 건조물이 존재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6천8백여 개가 판자나 종이, 형짚 등으로 지어진 것이었다. 그 밖에 1천1백여 개는 임시 건물, 1천여 채의 소규모 단독주택, 1천여 채의 소규모 상업 및 공업시설 등이 존재했다. Conseil municipal de la Ville de Paris(CMP), Rapports et documents n.130, l'année 1912. Louis Dausset, Rapport au nom de la 1er Commission et de la Commission mixte des fortifications, sur le déclassement total de l'enceinte fortifiée, l'annexion de la zone militaire, et sur le projet de convention entre la ville de Paris et l'Etat, 1912, p.25.

11)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1881년에서 1882년 1년 사이 파리의 빈곤한 구들의 서민주택 집세가 25%에서 35%까지 상승했다. Archives de la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Ba 486. Rapports de police du quartier de Belleville, Santé, Plaisance, juin 1882.

내에 조직할 것을 주장하였다.¹²⁾ 기요는 급진공화파 시의원이었다. 급진공화파는 중간층의 확대와 이들의 안정적 삶이 사회적 평화와 공화국 체제의 안정에 필수적이라 생각했기에 서민 주택문제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¹³⁾ 하지만 파리 시의회에서 급진공화파 보다 적극적으로 서민주택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이들은 시정사회주의자들이었다.

시정사회주의란 1880년대에 시의회에 적극 진출하여 공공적 사회적 성격의 시정 활동을 통해 도시민의 일상생활에 사회주의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확립해가면서 미래의 사회혁명을 준비하고자 했던 온건한 개혁적 사회주의자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계급투쟁과 혁명을 강조했던 쥘 게드(Jules Guesde)와 그가 1882년에 조직한 노동당(Parti Ouvrier)과 치열한 사상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게드주의자들로부터 ‘가능주의자(possibiliste)’라고 불리게 되었다. 가능주의자란 용어는 1881년 12월에 코뮌나드였던 기계공 쥘 조프랭(Jules Joffrin)이 파리 18구의 하원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촉발된 논쟁에서 비롯되었다. 시정사회주의자 폴 브루스(Paul Brousse)는 1881년 11월에 신문 『르 프롤레타르(Le Proletaire)』를 통해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추구한 “모든 것을 동시에” 실현하려는 혁명 노선이 이상적이어서 현실에 “아무 것도” 가져다주지 않는다면 사회주의자들의 요구들 가운데 “몇 가지를 궁극적으로 가능하게(possibles) 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즉각적인 실천을 통해” 사회주의와 혁명의 이상을 구현해가자고 호소했다.¹⁴⁾ 이에 대해 게드는 12월에 신문 『레갈리테(L'Egalité)』를

12) CMP, Rapports et documents n.78, l'année 1882. Proposition relative à la suppression du mur d'enceinte de Paris. Proposition de M. Yves Guyot tendant à la nomination d'une commission, à l'effet d'obtenir du gouvernement la désaffectation du mur d'enceinte, la cession à la ville de Paris des terrains qui en dépendent et la suppression de la zone militaire, 1882.

13) 민유기, 『도시이론과 프랑스 도시사 연구』, 131-132쪽.

통해 시정사회주의자들이 “선거 승리의 구실 아래” 혁명적 사회주의의 이상에서 후퇴하며 개혁에만 집중한다고 비판했다.¹⁵⁾

19세기 말에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한 노동당은 노동자들이 많았던 프랑스의 대규모 산업지대인 북부와 중부에서 왕성하게 세를 확장하고 있었고, 가능주의자들은 중간 규모의 산업체가 많았고 수공업 장인 전통이 강했던 파리 지역과 농업지대인 서부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가능주의자들은 “점진적인 공공서비스를 조직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준비해가기 위해, 즉 먼 미래의 혁명 보다 당장의 개혁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¹⁶⁾ 가능주의자들은 “비타협적 사회주의와 혁명적 언술주의(verbale révolutionnaire)에 반대하면서 온건한 사회주의를 대변했던 근본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이고, 실천적으로 점진주의자들” 이었다.¹⁷⁾

가능주의자들이라 불린 시정사회주의자들이 혁명의 대의와 이상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게드주의자들처럼 집산주의(collectivisme) 원칙과 계급투쟁에 의한 혁명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집산주의와 혁명을 거부한 부르주아 사회개혁가들과는 근본적으로 구분되었다. 다만 그들은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의 삶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운영해가면서 사회주의가 어떻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민중들에게 각인시키고, 전면적 계급투쟁과 혁명의 조건이 마련된 순간에 도래할 사회혁명 이후 사회의 전면적 재구성을 준비할 경험을 쌓겠다는 의도를 지녔다. 시정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 민중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사회주의적 공공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공간은 바로 도시정치였다.

14) *Le Prolétaire*, le 19 novembre 1881.

15) *L'Egalité*, le 11 décembre 1881.

16) Sylvain Humbert, *Les Possibilistes*, Paris: Marcel Rivière, 1911, p.16.

17) *Ibid.*, p.15.

시정사회주의의 이론적 논리적 기반은 파리코뮌 이후 스위스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브루스가 1880년 7월에 코뮌 가담자에 대한 사면령 직후 귀국하여 1883년에 출간한 소책자 『집단소유와 공공 서비스(La propriété collective et les services publics)』에서 마련되었다. 브루스는 “공공 서비스가 개별적 인간 노동의 최종 도달 단계”라고 주장하며 경제 영역 전반에 걸친 공적 관리의 필요성과 생산수단의 집단소유라는 개념을 강조하였다.¹⁸⁾ 즉, 그는 혁명적이건 온건하건 사회주의자들의 원칙이었던 집산주의를 다시금 확인하였다. 하지만 동시에 보다 현실적이고 즉각적으로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주택을 비롯해 민중의 일상생활을 개선시킬 영역을 도시의 공공 서비스로 조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¹⁹⁾

시정사회주의자들이 파리 시의회에 진출한 것은 1882년이었는데, 1년 전 18구의 하원 보권선거에서 낙선했던 조프랭이 시의원 보권선거에 출마해 20구에서 당선되었다. 1884년 지방선거에서는 조프랭, 샤베르(Charles Chabert), 1887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들 두 명과 브루스를 포함한 9명이 당선되었다. 이들은 주로 18, 19, 20구 등 파리의 가장 빈곤한 구들에서 시의원에 선출되었다. 조프랭은 1882년에 시의회에서 시유지에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 건설을 촉진할 방안을 시 당국이 검토하라고 요구하였다.²⁰⁾ 성곽 부지를 활용해 서민주택을 건설하자는 구상은 브루스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 성곽 부지 논의는 앞에서 언급한 급진공화 시의원 기요의 제안으로 1882년에 시작되었으나 1882년을 지나며 주택위기가 점차 완화되어 80년대 중반부

18) Paul Brousse, *La propriété collective et les services publics*, Paris: Prolétaire, 1883, Edition 1910, p.27.

19) *Ibid.*, p.42.

20) CMP, *Procès-verbaux, séance du 2 août 1882*. Lucien Lambeau, *Ville de Paris, Monographies municipales, Les logements à bon marché*, Paris: Imp. Municipale, 1897, p.VIII, pp.10-13.

터는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었다 성곽 부지 활용 논의는 1887년에 시 의원에 선출된 브루스의 주장에 의해 1888년에 성곽 부지 활용 문제를 논의할 새로운 위원회를 조직되면서 재개되었다. 브루스는 1890년부터 1906년까지 파리 성곽 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다. 위원회 활동을 주도한 브루스는 성곽을 해체하고 그 부지에 사회주택을 건설할 것, 국가로부터 성곽 부지의 소유권을 시가 양도받을 것 등을 요구하는 보고서들을 수차례 시의회에 제출하였다.²¹⁾

1880년대 시정사회주의자들을 비판하던 마르크스주의적 노동당의 사회주의자들도 1890년대 들어서는 도시정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지방선거에 나섰다, 1896년 5월 지방선거에서 주요한 공업 도시 곳곳에서 시정을 장악하였다. 또한 브루스, 게드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주의자들이 장 조레스(Jean Jaurès) 주도로 1905년에 결성된 통합사회당(SFIO)에 합류하였는데, 통합사회당은 혁명노선을 추구하면서도 시정활동에 적극적이었다.²²⁾ 따라서 1880년대 사회주의자들의 혁명과 개혁 논쟁에서 유래된 가능주의자란 용어는 1989년

21) CMP, Rapports et documents n.22, l'année 1893. Paul Brousse, Rapport au nom de la commission spéciale, sur la suppression du mur d'enceinte de Paris, 1893; Rapports et documents n.134, l'année 1900. Paul Brousse, Communication de la Commission chargée de négocier avec l'Etat pour l'aliénation des terrains rendus libres par la suppression des fortifications, Convention, mémoire préfectoral et lettre du ministre des Finances, 1900; Rapports et documents n.1, l'année 1902. Paul Brousse, Adolphe Chérioux, Rappor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fortifications et de la 3e Commission, sur un projet d'entente entre la Ville et l'Etat à propos du lotissement des terrains occupés par une partie du mur d'enceinte, 1902; Rapports et documents n.4, l'année 1905. Paul Brousse, Note, Analyse des propositions, rapports, projets de loi, débats, concernant la désaffectation du mur d'enceinte, 1905.

22) 마르크스주의적 게드주의자들의 점차적인 시정사회주의 화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émi Lefebvre, "Les socialistes, la question communale et l'institution municipale Le cas de Roubaix à la fin du XIX^e siècle", *Cahier Jaurès*, n.177-178, 2005.

대 이래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고, 시정사회주의라는 용어는 20세기 초에 도시정치에 관심을 가졌던 사회주의자 전반을 지칭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894년 11월 법에 의해 사회주택 정책이 시작되었으나 10여년이 지나도록 대규모 사회주택의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은 1906년, 1908년에 개선되었고, 1912년 법에 의해 그때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시 당국의 직접적인 사회주택 건설이 가능해졌다.²³⁾ 사회주택은 법률에 의해 수익성이 제한되면서도 위생설비와 건축 관련법이 요구하는 각종 규정들을 지켜야 했기에 지가가 비싼 곳에서는 건설이 어려웠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은 공유지였던 성곽 부지에 대규모 사회주택을 건설하기를 희망했다. 1912년 법에 따라 파리 시의회는 1914년 1월에 사회주택 공공사무소(Office public d'Habitations à bon marché)를 탄생시켰다. 이 사무소의 초대 소장은 급진공화파 상원의원이 맡았으나 부소장은 사회주의자 시의원 프레데릭 브뤼네(Frederic Brunet)였다.²⁴⁾ 1916년부터 1924년까지는 사회주의자로 1919년에서 1941년까지 파리 교외 소도시 쉬렌(Suresnes) 시장이었던 앙리 셀리에(Henri Sellier)가 소장을 맡아 1920-30년대 성곽 해체 부지에 사회주택을 건설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²⁵⁾

23) 민유기, 『도시이론과 프랑스 도시사 연구』, 144-145쪽, 149쪽.

24) Archives de Paris, VM 59 art 19. CMP, *Bulletin municipal officiel*, le 31 décembre 1913.

25) 민유기, 『파리 도시학연구소의 인문학 전통과 사회적 기능』, 20쪽. 이 논문에서 셀리에의 사회주택 공공사무소 소장직 시작이 1914년으로 표기된 것은 1916년의 오기임을 밝힌다.

II. 녹지 확보와 사회주택 건설 요구의 결합

1900년대에는 성곽을 해체한 후 부지를 녹지공간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사회개혁적 위생주의자들과 환경운동 진영에서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런 주장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정원도시(Garden City)’ 운동이나 ‘열린공간(Open Space)’ 운동의 영향을 받았다. 이들 운동은 산업도시의 비좁음과 더러움, 전염병의 확산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친환경적 도시정비나 재개발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열린공간 운동은 산업도시의 악취와 매연, 나쁜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광범위한 녹지 공원을 조성하자는 운동이었다. 에벤에젤 하워드(Ebenezer Howard)가 주창한 정원都市는 문화적 활력과 높은 임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인구를 유인하지만 고물가와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도시의 모순과, 쾌적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갖추었으나 경제적 기회와 문화적 흥밋거리가 부족한 농촌의 모순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대도시 주변에 도시와 농촌의 장점들만을 뒤섞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자는 이상적 도시계획안 이었다.

프랑스에서 정원도시 건설 운동은 뮤제 소시알(Musée social)에 의해 시작되었다.²⁶⁾ 뮤제 소시알은 부르주아 사회개혁가들의 정책연구소로 1895년에 문을 열었다. 뮤제 소시알 소속 주요 활동가였던 조르주 브누와-레비(Georges Benoit-Lévy)는 1903년 뮤제 소시알의 해외 조사 활동 가운데 하나였던 영국의 정원도시 운동에 대한 현지 조사의 책임자였고 1년 뒤 출판된 연구서를 통해 정원도시를 프랑스에 적극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²⁷⁾

26) 민유기, 『프랑스 사회개혁 두뇌집단 뮤제 소시알 활동과 보수적 개혁(1894-1914)』, 『전남사학』23집, 2004, 221-248쪽.

산업화로 인한 환경파괴를 막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1900년대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프랑스 동부 프랑쉬-콩테(Franche-Comté) 지역 두브(Doubs) 도의 하원의원이었던 샤를 보키에(Charles Beauquier)는 1901년에 ‘프랑스의 미와 풍경 보호 협회(Société pour la protection des paysages et de l’Esthétique de la France)’를 결성하여 자연과 역사 유적지 보호운동을 전개하였고, 파리 주변의 숲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하였다.²⁸⁾ 1900년에 재무부 장관이 성곽 부지의 일부를 민간에게 분할 매각하겠다는 계획안을 시의회에서 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1902년 정부와 파리는 파리의 서쪽에 위치한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 경계의 성곽 일부 부지를 분할 매각하여 개발한다는 협약을 맺는다.²⁹⁾ 시의회에서 사회주의자들은 처음에는 민간의 수익성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협약 체결을 적극 반대했으나 브루스는 시가 정부의 계획을 거부할 경우 파리의 이해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거라며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였다.³⁰⁾ 브루스는 이 부지를 공공을 위한 시설들이 들어서기를 희망했다. 환경운동가들 또한 이 부지를 녹지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였다.

19세기 말의 저명 탐험가였던 우과 정치가 가브리엘 봉발로(Gabriel Bonvalot)는 1902년에 ‘열린공간 보존과 확대를 위한 위원회(Comité pour la conservation et la création des espaces libres)’를 결성해 프랑스 모든 도시에 일정한 규모의 열린공간을 확보하도록 규

27) Georges Benoit-Lévy, *La Cité-jardin*, Paris: Henri Jouve, 1904.

28) Robert de Souza, “Les Espaces libres, résumé historique”, *Mémoires et documents du Musée social*, 1908, pp.177-185.

29) Jean-Louis Cohen, André Lortie, *op.cit.*, p.79.

30) Marie Charvet, “La question des fortifications de Paris”, p.36.

정하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였다. 한편, 1900년 파리 올림픽 럭비경기에서 우승한 프랑스 대표팀의 유명 운동선수였던 프란츠 레셀(Frantz Reichel)은 1905년에 일간지 『르 피가로(Le Figaro)』에 블로뉴 숲의 경계 성곽 부지를 개발하지 말고 녹지와 공공 스포츠 시설로 정비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고문을 연이어 실었다.³¹⁾ 사회주의자들과 녹지 확보를 요구한 환경주의자들은 공공개발 필요성을 전파하며 여론을 조성하였고 결국 블로뉴 숲 경계에 위치한 성곽 부지의 부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체 성곽의 완전한 해체와 모든 부속 부지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층 심화되었다.

녹지공간과 열린공간 확보를 위한 환경주의자들의 움직임은 1900년대 후반에 더욱 활발해졌다. 1908년과 1909년에 우파 시의원 도세(Louis Dausset)는 시의회에 성곽 전체를 허물어 시내 쪽으로 내부순환도로를 만들고 시외 쪽으로 녹지벨트를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³²⁾ 하지만 파리 시의회에서는 사회주택 정책에 적극적이었던 급진공화파와 사회주의자 시의원들이 성곽 부지의 많은 부분을 사회주택용으로 사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도세는 이 같은 상황에서 1909년에 ‘열린공간과 도시정화 및 스포츠를 위한 동맹’이란 단체를 조직해 성곽부지 전체를 녹지 공원으로 활용하라는 여론 조성에 앞장섰다.³³⁾ 그밖에도 소규

31) Frantz Reichel, “Sauver les arbres du Bois”, *Le Figaro*, le 6 septembre 1905. “Pour sauver le Bois”, le 7 10, 11, 12, 14 septembre 1905.

32) CMP, Rapports et documents n.73, l’année 1908, Louis Dausset, Proposition au sujet du déclassement total des fortifications et de la zone militaire, 1908. CMP, Rapports et documents n.110, l’année 1909, Louis Dausset, Deuxième proposition relative au déclassement total des fortifications à l’annexion de la zone militaire et à sa conversion en espaces libres, 1909.

33) Ligue pour les espaces libres, l’assainissement et les sports, Déclassement des fortification et conversion de la zone en espaces libres, Paris: Pierre Roger, 1909.

모 공원들을 조성하고 스포츠 시설물을 건립하자는 요구들을 내건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활동하였다. 이들이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은 도시위생과 도시미관 개선의 시각에서 비롯되었다. 열린공간 조성을 강조한 부르주아 중산층 환경주의자들에게 주거난으로 고통을 받던 하층민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문제는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녹지 확보만을 강조하는 부르주아 중산층 환경주의자들의 입장은 사회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자 했던 두 세력에 의해 수용되어 타협점이 찾아지게 된다. 첫 번째 세력은 평화적 점진적 보수적 사회개혁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뮤제 소시알이란 사회정책 민간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회개혁가들이었다. 뮤제 소시알 내부에는 1908년 1월 14일에 ‘도시와 농촌 위생 섹션’이 만들어져 주택 문제와 환경, 도시계획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다. 뮤제 소시알은 택지 확보가 용이한 파리 외곽 지역에서 소규모 정원이 딸린 저렴하고 위생적인 단독주택 단지를 건설하여 정원도시 운동을 사회주택 정책과 결합시키자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³⁴⁾

1908년 7월 5일 소르본 대학 강당에서 개최된 열린공간 운동 단체들의 회합에서 뮤제 소시알 운영위원회 의장이던 사회개혁적 공화파 하원의원 쥘 지그프리드(Jules Siegfried)는 성곽을 해체된 곳에는 “합리적인 도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³⁵⁾ 그는 같은 해

34) Giovanna Osti, “Le Musée social et l’urbanisme au début du siècle”, *Vie social*, n.3, 1984, pp.117-125. Anne Cormier, *Extension, limites, espaces libres: les travaux de la Section d’hygiène urbaine et rurale du Musée social*, DEA de l’Ecole d’architecture Paris-Villemin, 1987. Alain Cottureau, “Les début de la planification urbaine dans l’agglomération parisienne”, *Sociologie du travail*, oct-déc 1969, pp.342-365.

35) “Compte rendu de la réunion en faveur des espaces libres tenue dans le Grand Amphithéâtre de la Sorbonne le 5 juillet 1908. Allocution de M. Jules Siegfried”, *Musée social, Annales, Mémoire et Documents*, 1908, p.203.

7월 1일에 하원에 성곽 해체와 열린공간 확보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한 상태였다.³⁶⁾ 지그프리트는 사회주택 정책의 시작을 알린 1894년 저가주택법의 입안자로 사회주택의 확산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는데, 성곽 부지에 대한 열린공간 확보와 사회주택 건설이라는 상이한 주장이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 같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난 완화를 위한 도시정비가 합리적이라고 믿었다. 사회주택 단지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조성된다면 이는 소규모의 정원도시로 기능할리라는 전망도 가능했다. 프랑스 정원도시 운동을 주도한 브누와-레비 역시 성곽과 그 부지에 공원, 잔디, 놀이시설들과 사이사이 빌라 형태의 주택이 들어서는 것이 파리를 둘러싼 공간 활용이 “교외를 미래의 도시 모델로 바꾸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⁷⁾

두 번째 세력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세기 말부터 성곽이 도시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시의회와 국회에서 성곽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자 각계각층의 요구들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는 이해 당사자들도 포함된다. 성곽에서 도시 안쪽으로 접해있는 토지와 건물 소유주들 역시 성곽 해체와 그 주변 부지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군사적 용도로 남겨진 공터가 민간에게 매각되도록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했다.³⁸⁾ 또한 성곽이 허물어지리라는 기대감 속에 후일의 보상을 목적으로 성곽 부지에 무허가 가

36) Jules Siegfried et al, Proposition de loi concernant les fortifications de la Ville de Paris et les espaces libres de l'agglomération parisienne, *Journal officiel, Documents parlementaires*, 1908, annexe n.1865, p.637.

37) Georges Benoit-Lévy, *La Ville et son image*, Paris: Jouve, 1910, p.63.

38) 프랑스 부동산 소유자 조합 연합은 정부와 시 당국의 도시 위생 정책과 사회주택 정책이 주택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정치적 압력단체로 활동하였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이 단체의 연례 총회 보고서들을 참고하라. Union des chambres syndicales de la propriété bâtie de France, *Congrès de la propriété bâtie de France, Comptes-rendu*, 1894-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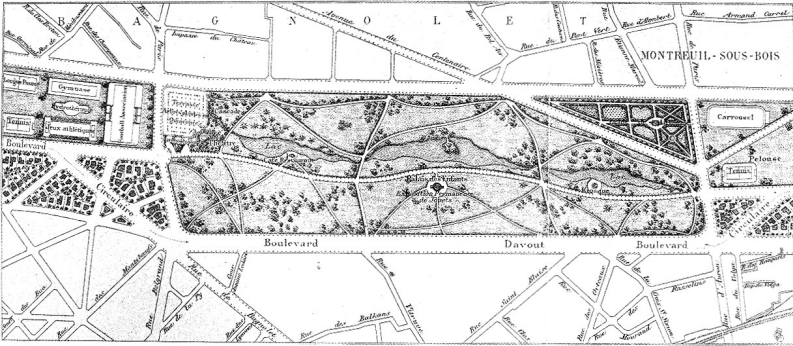
건물을 세우는 이들도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민간의 투기성 개발 논리를 잠재우고 성곽과 그 부속 부지를 도시의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확보하기 위해 이 공간을 열린공간으로 정비하자는 환경운동 진영과 협력해 나갔다.

성곽 해체와 그 부속 부지 활용을 위해 사회주의자와 부르주아 중산층 환경운동가들이 협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다. 먼저 앞에서 불로뉴 숲 경계 부지의 매각 문제 논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곽 부지를 민간에게 양도하면 도시가 무분별하게 팽창하고 투기성 개발이 심화될 거라는 판단 아래 공유지였던 성곽 부지를 부동산 투기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인식이 두 세력에게 공유되었다.

다음으로 도시 위생에 대한 공통의 이해관계 때문이었다. 사회주의자들은 단지 도시 하층민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주택의 건설을 확대하고자 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처음 사회주택의 정책을 주도한 부르주아 사회개혁가들은 서민 주거 개혁의 필요성으로 위생 개선, 도덕성 고양, 전염병 예방, 가족보호, 소규모 소유권 확대, 사회적 평화와 공화국 체제의 안정 등을 내세웠다.³⁹⁾ 이러한 기대치 가운데 노동인구의 열악한 주거 조건을 개선하여 일상생활 속에 위생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부르주아 사회개혁가와 사회주의자들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브루스는 1893년에 시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성곽 해체를 주장하면서 주거문제 뿐 아니라 도시 위생 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⁴⁰⁾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위생 문제를 공공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사회주의적 실천의 일환으로 파악했다.

39) 민유기, 『20세기 전환기 프랑스 서민주택 개혁의 이중적 근대성: 사회주택 담론, 규범, 공간 분석』, 『서양사론』81호, 2004, 45-53쪽.

40) CMP, Rapports et documents n.22, l'année 1893.



<지도 2> 환경주의 운동단체의 성곽 부지 열린공간 계획안, 1909년⁴¹⁾

사회주의자 시의원 알베르 토마(Albert Thoma)⁴²⁾ 1908년에 사회당 출판부를 통해 출간한 소책자에서 성곽 부지의 활용에 있어서 열린공간 확보 운동가들이 요구한 녹지 공간의 구성을 적극 수용했다. 하지만 그는 위생과 도시 미관만을 강조하던 환경운동가들의 문제의식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한층 발전시켰다. 그는 녹지 공간 확보의 문제가 파리의 부자 구들과 가난한 구들 간의 대립을 허물면서 전체 도시를 개혁하는 사회주의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³⁾

사회당 출판부는 같은 해에 소장 사회학자 알브락스(Maurice Halbwachs)의 『도시의 토지정책』이란 소책자를 출간했다. 이 소책자는 도시정책이 단지 미학과 위생의 목적으로만 방향이 설정되어서는 안

41) Jean-Louis Cohen, André Lortie, *op.cit.*, p.95.

42) 알베르 토마(Albert Thoma 1878-1932)는 파리 고등사범을 수석 졸업한 최고 엘리트로 1904년에 파리 교외 소도시 샹피니(Champigny)에서 시의원에 선출되었고 1910년부터 1921년까지 셴 도와 타른 도에서 하원의원에 선출된 사회주의자이다. 1919년에 창설된 국제노동사무국(ILO)의 초대의장을 지냈다. Patrick de Laubier, “Albert Thomas (1878-1932), reformiste social”, *Revue française des affaires sociales*, n.47, novembre 1994, pp.43-52.

43) Albert Thomas, *Espaces libres et fortifications*, Paris: Librairie du Parti Socialists, 1908.

된다고 주장했다. 알브박스는 도시정치가 도시민의 사회적 감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부유한 구들의 건축 미학과 충분한 위생시설 및 녹지 공간을 가난한 구들에게도 확산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부자들의 건물장식이나 사유지에서의 고급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이에 대한 정확한 세금 부가를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도시 전체의 발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⁴⁾ 사회주의자들은 녹지 확장을 주장하는 환경주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를 파리 외곽의 가난한 구들의 환경개선과 관련지어 사고하면서 공공개발의 논리를 강화시켜 나갔다.

각종 산업시설들로 인해 매연과 악취가 심하고 비위생적이던 파리의 외곽 지역을 정화하고 미화하기 위해 성곽 부지를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요구하던 부르주아 중산층 환경운동 단체들은 자신들만의 노력으로 열린공간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사회혁명을 예방하기 위해 점진적 보수적 사회개혁을 추구하던 뮤제 소시알의 부르주아 사회개혁가들이 지닌 사회적 영향력을⁴⁵⁾ 인정하면서 사회주택 단지와 녹지 공간의 병존이라는 합리적 공간 구상을 수용하게 되었다.

44) Maurice Halbwachs, *La politique foncière des municipalité*, Paris: Librairie du Parti Socialiste, 1908, pp.29-30.

45) 뮤제 소시알은 사회개혁적 시민사회단체들 간의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했다. 뮤제 소시알은 가톨릭 사회운동 진영, 고용주 온정주의, 개혁적 공화파 정치가들 등 사회적 평화와 기성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틀 내에서 모든 점진적 사회개혁을 추구하려는 이들의 중심점이었다. 뮤제 소시알에서 논의되고 준비된 각종 사회정책과 법률 계획안들은 20세기 전환기의 사회입법 제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민유기, 『프랑스 사회개혁 두뇌집단 뮤제 소시알 활동과 보수적 개혁』, 236-237쪽,

Ⅲ. 도시 공공개발을 통한 성곽 부지의 변화

1908년부터 정부와 파리시는 성곽과 그 부속 부지 전체를 파리시에 양도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12년 12월 16일에 재정부 장관, 국방부 장관, 파리시 행정 책임자인 쉐 도지사 사이에 성곽과 그 부지를 파리시의 소유 및 관리로 전환한다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파리 시의회는 1913년 1월 3일에 이 협약을 승인하였고 그 다음 날 하원에 이 협약을 실천할 법률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법률안에 대한 하원의 논의는 1914년 7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중단되었고 1918년 11월 전쟁이 끝나자 재개되어 최종적으로 1919년 4월 19일자 법으로 제정되었다.⁴⁶⁾

1912년 협약에서는 전체 부지의 4%만이 사회주택 건설 용도로 할당되었으나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의 노력으로 1914년 1월에 8%로 늘어났으며, 1919년 법에서는 25%로 규정되었다. 또 다른 변화는 부지 일부를 군이 사용한다는 1912년 협약 내용의 조항이 법에서 삭제된 점이다. 전쟁을 겪으며 도시 방어와 전통적 군사전술이 크게 변모하였기 때문에 도시 외곽에 군이 군 시설을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른 조항들은 협약 내용이 법률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중요 조항은 성곽을 점차적으로 철거하여 공공 기관이나 사회주택으로 건설 용도로 활용하고, 성곽으로부터 시 바깥 250m까지 성곽에 딸린 건축금지 부지는 도시 위생을 위한 열린공간으로 정비한다는 것이었다.

파리의 성곽은 1919년 4월 30일부터 철거되기 시작하여 1929년에

46) *Journal Officiel*, le 20 avril 1919, pp.4146-4153.

완전히 해체되었다. 성곽과 그 주변 부지는 1920-30년대 크게 사회주택과 교육시설 건설, 녹지와 공원 조성, 박람회 장소나 스포츠 경기장 건립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활용되었다.

성곽부지에 세워진 사회주택은 세 가지 유형이었다. 첫째 유형은 1912년 사회주택 관련법으로 시 당국의 직접적인 사회주택 건설이 허용되면서 이를 담당할 기관으로 만들어진 사회주택 공공사무소가 세운 저가임대주택(Habitations à bon marché)들이다. 사회주택 공공사무소는 가장 먼저 해체된 파리 북쪽 18구 몽마르트(Montmartre) 언덕 뒤편의 클리냥쿠르(Clignancourt) 성문 주변 용지를 넘겨받아 1922-28년 사이에 2,734세대, 유아원, 초등학교, 보건소, 가사교육 시설 등을 갖춘 사회주택단지를 건설하였다. 이어 1928년부터는 남쪽에 위치한 14구의 끝에 2,659세대의 사회주택 단지를, 30년대에는 주로 남동, 동, 북동, 북쪽에 사회주택 단지를 건설하였다.⁴⁷⁾

둘째 유형은 저가주택 보다 좀 더 임대료가 높은 대신에 면적이 더 넓고 각종 편의 시설이 개선된 적정가격임대주택(Immeubles à loyers modérés)들이다. 1923년 봄에 파리의 몇몇 은행들이 ‘도시와 농촌연구회(Société d’études générales urbaines et rurales)’을 결성해 1894년에 시작된 사회주택 정책 하에 건설되던 저가임대주택 유형을 발전시킨 사회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시의 지원을 요구했다. 시는 녹지공원 용도의 성곽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19세기 말부터 늘어나고 있는 사무직과 중간관리직 노동자나 고급 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주거환경이 개선된 사회주택의 건설 필요성을 인정하며 이 요구를 수용하였다. 하지만 전적으로 민간 은행에 사회주택 건설을 맡기지 않기 위해 은행들의 참여시켜 1923년 5월

47) Jean-Louis Cohen, André Lortie, *op.cit.*, pp.160-164.

29일 파리시주택공사(Régie immobilière de la Ville de Paris)를 설립하였다. 시는 성곽 부지 일부를 제공하면서 사회주택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임대료 상한선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다. 다만 저가임대주택이 수혜를 입고 있던 각종 세제혜택은 제공하지 않았다. 1926년에 1,083채의 세대의 사회주택단지가, 1933년에는 5,573 세대의 사회주택 단지가 파리의 남쪽과 남서쪽 경계에 건설되었다.⁴⁸⁾

마지막 유형은 적정가격임대주택 보다 넓고 주거 설비가 한층 더 개선된 중산층을 위한 주택이었다. 노동과 사회보장부(ministère du Travail et de la Prévoyance sociale) 장관 급진공화파 정치가 루이 루세르(Louis Loucheur)는⁴⁹⁾ 프랑스 전역에 사회주택을 확산시키기 위해 1928년 7월 13일에 5년 내에 20만호의 저가임대주택과 6만호의 적정가격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들에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법률을 제정하였다.⁵⁰⁾ 이 법은 주거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의 산물이었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1930년에 세워진 부동산관리회사(Société anonyme de gestion immobilière)는 쉐 지사에게 적정가격 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성곽 부지의 양도와 금융지원을 요청하였다. 이 회사는 파리시주택공사가 지은 적정가격임대주택 보다 더 좋은 주택을 건설하고 성곽 부지의 판자촌에서 거주하다 부지 정비로 인해 쫓겨난 이들에게 주택의 15%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의회는 이를 승인해 성곽 부지 일부를 저렴하게 제공했고 파리 서쪽 성곽 부지에 1934-35년에 18,278세대의 주택단지가 건설되었다.⁵¹⁾

48) *Ibid.*, pp.164-176. Marie-Jeanne Dumont, *Le logement social à Paris 1850-1930, Les Habitations à bon marché*, Liège: Mardaga, 1991, p.182.

49) 루이 루세르의 생애와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Stephen D. Carls, *Louis Loucheur, ingénieur, homme d'État, modernisateur de la France 1872-1931*, Lille: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2000.

50) Marie-Jeanne Dumont, *op.cit.*, p.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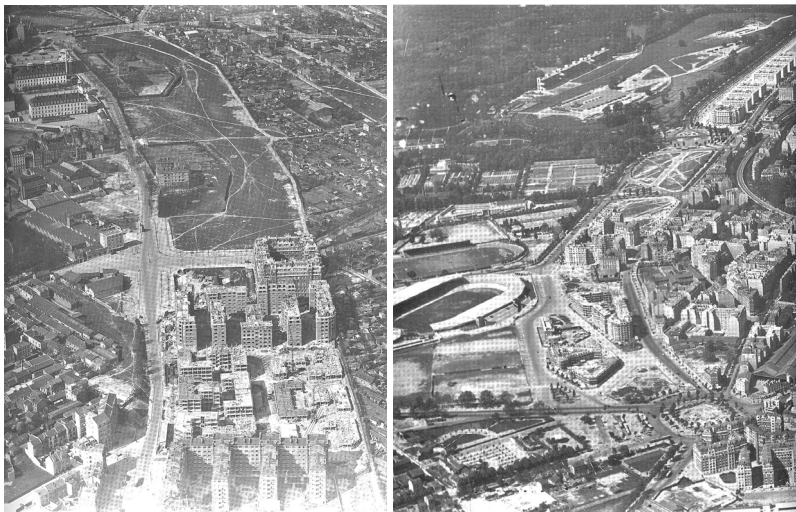
성곽이 해체되고 사회주택 단지가 세워지면서 단지 거주자들의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필요했다. 파리에는 지속적 인구 증가 속에서 1920-30년대에 스물네 곳의 초등학교가 시 재정으로 건립되었는데 이중 1/3인 여덟 곳이 성곽이 해체되고 들어선 사회주택 단지 인근에 세워졌다.⁵²⁾ 시의회는 또한 성곽 부지의 일부를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촌(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건립을 위해 저렴하게 매각하였다.

알자스 출신으로 쥬피터(Jupiter) 석유회사의 소유자였던 도이치 드 라 메르트(E. Deutsch de la Meurthe)는 중도좌파인 급진공화파 정치가 앙드레 오노라(André Honnorat)와 함께 각국 엘리트들의 교류가 국제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생각을 공유하며 국제기숙사촌의 건립을 위해 시로부터 남쪽 성곽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다. 오노라는 1920년에 공교육부 장관직에 올라 국제기숙사촌이 건설되는 데 많은 지원을 하였다. 20-30년대 점진적으로 건립된 국제기숙사촌에는 기숙사, 수영장과 테니스 코트 등 스포츠 시설물, 극장, 녹지, 식당, 도서관 등을 갖추어졌다. 국제기숙사촌은 1927년에 외국인과 프랑스의 지방출신 대학생 3천명을 수용했는데, 이 당시 파리의 모든 대학생 수는 2만6천208명이었고 이 가운데 외국학생은 7천315명이었다.⁵³⁾ 이 기숙사촌의 규모는 30년대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확장되었다.

51) Jean-Louis Cohen, André Lortie, *op.cit.*, pp.176-178. Marie-Jeanne Dumont, *op.cit.*, pp.139-142, p.183.

52) Jean-Louis Cohen, André Lortie, *op.cit.*, p.196.

53) Bertrand Lemoine, *op.cit.*, pp.17-31.



<사진 1> 성곽 부지에 건설중인 사회주택 1931년, 프랑스 국립지리연구소 소장
<사진 2> 성곽 부지에 조성된 스포츠 시설 및 공원 1933년, 프랑스 국립지리연구소 소장

1900년대 파리를 녹지와 꽃밭으로 에워싸야 한다고 주장하던 녹지와 열린공간 확보 운동 단체들은 사회주택 건설을 우선시하던 사회주의자들과 협력하여 해체된 성곽 부지에 대한 민간의 투기성 개발을 막을 수 있었다. 양차 세계대전 사이 기간에 건립된 사회주택 단지의 사이사이에는 넓은 녹지와 소규모 공원이 조성되었다.⁵⁴⁾ 녹지와 소규모 정원들은 사회주택 거주자들에게 훌륭한 여가활동의 장소를 제공해주었다. 1924년 파리 올림픽과 1925년 국제 장식미술 박람회, 1931년 국제 식민지 박람회 등을 계기로 스포츠 경기장과 박람회 전시공간들도 성곽 부지 곳곳에 마련되었다.⁵⁵⁾

54) Jean-Louis Cohen, André Lortie, *op.cit.*, pp.200-202.

55) *Ibid.*, p.132, pp.138-140, pp.207-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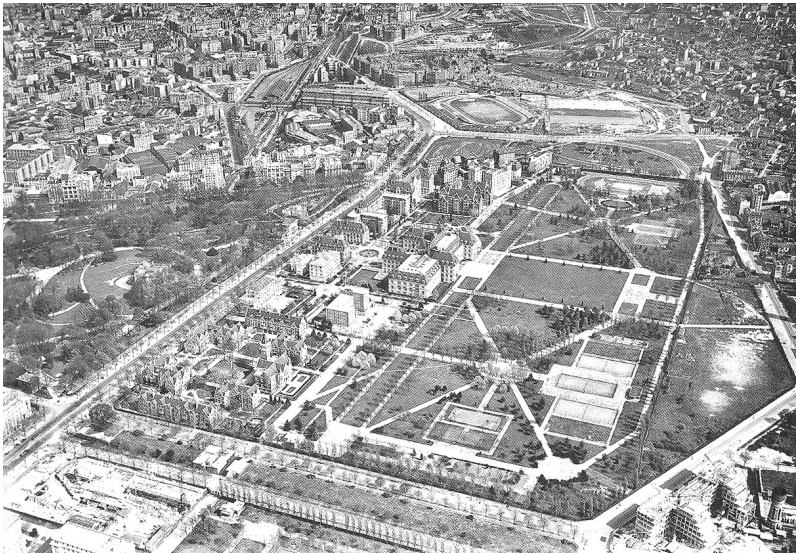
성곽과 그 부속 부지의 공공개발은 30년대에 완성되지 않았다. 해체된 성곽이나 말 그대로 공터였던 일부 부속 부지는 공공개발과 정비에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성곽 부지 곳곳에는, 특히 파리의 가난한 구들이던 북쪽, 동쪽, 남쪽 구들의 경계에 위치한 성곽 부지들에는 무허가 판자촌이 즐비했다. 성곽 부지는 해체되기 전부터 구획되어 있었기에 구역을 의미하는 존(zone)으로 불렸고, 무허가 판자촌 거주자들은 존에 사는 사람들이란 뜻의 조니에(Zonier)라는 속어로 지칭되었다. 해체된 성곽과 그 부지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발하고 정비한다고 할지라도 최하층 도시 빈민들인 조니에들을 무작정 내쫓을 수는 없었다.

1922년에 시의회는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촌 건립 예정지 영역에 살고 있던 조니에들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내쫓지 않기 위해 즉각적인 부지의 수용과 판자촌 철거를 연기하였다. 1920년대 조니에들은 판자촌 철거 반대 운동은 벌였고, 사회당과 공산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 운동을 후원하며 조니에들의 이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결국 1930년 4월 11일자 법은 파리시가 판자촌의 가건물 소유자들에게 수용과 철거에 따른 보상금의 지불을 규정했고, 1931년 1월 1일자 법은 파리시가 점차적으로 조니에들의 이주를 도운 후 15년 내에 모든 존을 수용하고 조니에들은 25년 내에 존을 완전히 비우도록 규정했다.⁵⁶⁾ 조니에들의 일부는 성곽 부지에 조성된 사회주택 단지에 거처를 구할 수 있었고, 일부는 다른 곳으로 이주해갔다.⁵⁷⁾ 성곽부지의 바깥 쪽 원형에는 1960년대에 외부고속순환도로가 건설되었다.

56) *Ibid.*, p.226, p.228, p.230.

57) 조니에들의 이주과정은 이 글의 연구 범위를 넘어서기에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이 문제는 현재까지 프랑스와 그 외 어떠한 국가들에서도 연구되지 않았다. 사료가 불충분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파리시 고문서보관소에는 관련 사료가 일부만이 남아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파리 성곽 부지의 공공개발 결과 1860년에 시로 편입된 해체되기 전 성곽까지의 파리 경계는 성곽 부지만이 시 영역으로 포함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성곽 부지가 민간에게 양도되어 투기성 개발이 진행되었다면 다른 서유럽의 대도시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아담하고 원형의 시 경계를 파리는 지금과 다른 방식으로 동서남북 들쭉날쭉 팽창해 나갔을 것이다. 현재 파리의 경계 맨 바깥쪽, 즉 성곽 부지의 맨 바깥쪽은 60년대 건설된 여러 방면의 고속도로 및 시내와 바로 연결되는 외부고속순환도로가 놓여있고 여기서부터 시내 쪽으로 원형의 녹지대와 공원, 그 다음으로 사회주택 단지와 교육기관 및 국제 기숙사촌, 스포츠 경기장과 전시관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 건조물들의 시내 쪽 경계에는 내부순환도로가 놓여있다.



<사진 3> 성곽 부지에 세워진 파리대학 국제기숙사촌 1950년, 프랑스 국립지리학연구소 소장

나오며

파리 성곽은 군사 방어용으로 1840년대 초에 당시 파리시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외곽에 원형으로 건설되었다. 이 성곽은 센 지사 오스만이 대대적인 도시정비를 추진하던 와중에 파리가 주변 소읍들을 시로 편입시킨 1860년부터 파리의 원형의 경계가 되었다. 이 성곽을 파리와 그 주변 소도시의 인구 팽창이 낳은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해체하자는 논의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다. 20세기 전환기에 파리 시의회의 사회주의자들은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성곽을 파괴하고 그 부지에 사회주택 단지를 건설하자고 주장하였다. 1894년부터 사회주택 정책이 시작되었으나 주택건설 부지가 부족해 파리에 건설된 사회주택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고, 이로 인해 사회주택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부르주아 중상층 환경운동가들은 위생상태 개선과 도시미화를 위해 성곽을 해체하고 그 부지에 녹지와 소규모 공원을 조성하여 열린공간으로 정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 두 상이한 입장은 보수적 사회개혁을 추구한 중도적 사회개혁가들의 민간 정책연구소였던 뮤제 소시알에 의해 혼합되었다. 뮤제 소시알의 사회개혁가들은 열린공간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주거난 해소와 사회적 평화에 도움이 될 사회주택 단지 건설의 필요성 또한 강조하였다. 처음에는 사회주택 단지뿐만 아니라 성곽 부속 부지를 사용하자고 주장하던 사회주의자들 역시 노동자들이 밀집해 거주하던 도시 주변부 구들에 조성될 녹지 공원이 노동인구의 일상적 삶에 위생을 강화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미화가 특정 계급 계층의 전

유물이 아니라 도시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열린공간 조성 요구를 수용해갔다. 결국 환경운동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공유지였던 성곽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경우 발생할 투기성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인식에서 상호 협력하였다. 이 같은 협력으로 인해 성곽 부지의 일부는 사회주택 단지로, 일부는 열린 공간으로 정비한다는 타협안이 도출되었다.

1919년에 제정된 성곽 해체와 부지 활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소유지로 군이 관리하던 성곽과 부속 부지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을 파리시에 넘겼고, 부지를 사회주택 단지와 공공시설, 녹지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규정하였다. 1919년부터 시작된 성곽 해체는 1929년에 마무리되었고 그 부지에 1920-30년대 내내 사회주택 단지와 공원, 스포츠 경기장, 국제기숙사 촌, 박람회 전시관 등이 조성되었다. 도시 외곽 경계를 사회주택 단지와 공공 건조물들, 그리고 가느다란 녹색 띠로 둘러싸게 한 파리시 경계 공간의 활용 방식은 다른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이는 도시공간의 사회적 공적 활용을 위해 노력한 사회주의자들과 환경주의자들이 투기성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 진영의 입장을 수용해가면서 상호 협력한 결과였다.

주제어 : 파리 성곽, 도시공공개발, 사회주택, 열린공간, 도시위생

(논문투고: 2010.4.12/ 논문심사완료: 2010.5.19/ 논문게재 확정일: 2010.5.21)

참고문헌

1. 공문서와 언론 사료

Archives de Paris, VM 59 art 19.

Archives de la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Ba 486.

Journal Officiel, 1908, 2010.

L'Egalité, 1881.

Le Figaro, 1905.

Le Prolétaire, 1881.

Conseil municipal de la Ville de Paris(CMP), Rapports et documents, n.78, 1882; n.22, 1893; n.134, 1900; n.1, 1902; n.4, 1905; n.73, 1908; n.110, 1909; n.130, 1912.

CMP, *Bulletin municipal officiel*, 1913.

CMP, *Procès-verbaux*, 1882.

2. 간행물 사료

Benoit-Lévy, Georges, *La Cité-jardin*, Paris: Henri Jouve, 1904.

_____, *La Ville et son image*, Paris: Jouve, 1910.

Brousse, Paul, *La propriété collective et les services publics*, Paris: Prolétaire, 1910[1883].

Halbwachs, Maurice, *La politique foncière des municipalité*, Paris: Librairie du Parti Socialiste, 1908.

Humbert, Sylvain, *Les Possibilistes*, Paris: Marcel Rivière, 1911.

Lambeau, Lucien, *Ville de Paris, Monographies municipales, Les*

logements à bon marché, Paris: Imp. Municipale, 1897.

Ligue pour les espaces libres, l'assainissement et les sports,
Déclassement des fortification et conversion de la zone en
espaces libres, Paris: Pierre Roger, 1909.

Musée social, Annales, Mémoire et Documents, 1908.

Thomas, Albert, *Espaces libres et fortifications*, Paris: Librairie du
Parti Socialists, 1908.

Union des chambres syndicales de la propriété bâtie de France,
Congrès de la propriété bâtie de France, Compte-rendu,
1894-1914.

3. 연구서와 논문

민유기, 『20세기 전환기 프랑스 서민주택 개혁의 이중적 근대성: 사회
주택 담론, 규범, 공간 분석』, 『서양사론』81호, 2004.

_____, 『프랑스 사회개혁 두뇌집단 뮤제 소시알 활동과 보수적 개혁
(1894-1914)』, 『전남사학』23집, 2004.

_____, 『도시이론과 프랑스 도시사 연구』, 서울, 심산, 2007.

_____, 『파리 도시학연구소의 인문학 전통과 사회적 기능』, 『인천학
연구』12호, 2010.

Carls, Stephen, D., *Louis Loucheur, ingénieur, homme d'État,
modernisateur de la France 1872-1931*, Lille: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2000.

Charvet, Marie, "La question des fortifications de Paris dans les
années 1900", *Genèses*, n.16, juin 1994, pp.23-44.

_____, *Les fortifications de Paris: de l'hygiénisme à*

- l'urbanisme, 1880-1919*, Rennes: Presses Universitaires de Rennes, 2005. [*De l'hygiénisme à l'urbanisme: la question des fortifications de Paris de 1880 à 1919*, Thèse de EHESS, 1999].
- Cohen, Jean-Louis & Lortie, André, *Des Fortifs au Perif: Paris, Les Seuils de la ville*, Paris: Picard, 1991.
- Cormier, Anne, *Extension, limites, espaces libres: les travaux de la Section d'hygiène urbaine et rurale du Musée social*, DEA de l'Ecole d'architecture Paris-Villemin, 1987.
- Cottureau, Alain, “Les début de la planification urbaine dans l'agglomération parisienne”, *Sociologie du travail*, oct-déc 1969.
- De Laubier, Patrick, “Albert Thomas (1878-1932), reformiste social”, *Revue française des affaires sociales*, n.47, novembre 1994.
- Dumont, Marie-Jeanne, *Le logement social à Paris 1850-1930, Les Habitations à bon marché*, Liège: Mardaga, 1991.
- Fierro, Alfred, *Histoire et dictionnaire de Paris*, Paris: Robert Laffont, 1996.
- Gaudin, Jean Pierre, *L'Avenir en plan. Technique et politique de la planification urbaine 1900-1930*, Seyssel: Champ Vallon, 1985.
- Lefebvre, Rémi, “Les socialistes, la question communale et l'institution municipale Le cas de Roubaix à la fin du XIXe siècle”, *Cahier Jaurès*, n.177-178, 2005.

- Lemoine, Bertrand, *La Cité Internationale Universitaire de Paris*,
Paris: Editions Hervas, 1990.
- Lortie, André & Schall, Pierre ed., *Parcs et promenades de Paris*,
Paris: Editions du Demi-Cercle, Pavillon de l'Arsenal, 1989.
- O'Brien, Patricia, "L'Embastillement de Paris: The Fortification of
Paris during the July Monarchy", *French Historical Studies*,
vol.9, n.1, 1975.
- Osti, Giovanna, "Le Musée social et l'urbanisme au début du
siècle", *Vie social*, n.3, 1984.

The partnership between Socialists and Environmentalists for Urban Public Development: Demolition of Paris Fortification Walls and Uses of their lot in the early 20th century

Min, You-ki

This thesis is designed to demonstrate that the partnership between socialists and environmentalists contributed to the fact that Paris fortification walls torn down in 1920's and their surrounding land were transformed for public uses, not for speculative development. To provide such an analysis, this study explores these main themes: how different the positions of socialist and environmentalist were regarding the uses of the fortification walls and their vacant lots, what kinds of shared interest the two groups had, and more specifically, how the walls and their surroundings were refurbished and utilized.

The fortification walls were built 10km away from the city center for military defenses. With the neighboring small communes being annexed to Paris, the walls became the border encircling the city in 1860. At the turn of 20th century, the removal of the walls became a controversial issue because they proved ineffective in the defense of the city. Socialists in Paris municipal council argued that

the walls needed to be destroyed and Social Housing should be built for working class. On the other hand, the bourgeois environmentalists argued that the walls should be replaced by public parks, serving as an open space to beautify the city and improve the urban hygiene conditions.

The two competing opinions were reconciled as Musee Social functioning as a think tank of conservative social reform and socialists embraced the ideas of open space. The partnership between environmentalists and socialists was attributable to their common recognition that transferring the lot to private sectors would encourage speculative development and that public properties should be rehabilitated for public interest. The fortification walls and their surrounding land demolished in 1920's were transformed into a complex of social housing, public parks, and sports facilities, and university dormitories. The public development of the Peripherie as a boundary between Paris and its suburban towns has many meaningful implications for social discussions over the urban development.

Key Words : Paris fortification, Urban Public Development,
Social Housing, open space, urban hygiene